

체감 온도와 동떨어진 기상청 온도

기상청이 발표하는 온도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온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녹색연합에 따르면 전주 도시열섬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상청 발표온도와 생활온도가 평균 1.9~2.1도 정도 온도차를 보여 기상청의 발표온도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온도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녹색연합이 지난 7월 30일과 8월 6일, 2일간 전주시내 30개 지점에서 도시열섬실태를 조사 결과, 7월 30일은 오후 2시와 3시에 숲과 하천을 제외한 26개 지점의 평균온도가 35.6도를 나타냈으며, 8월 6일에는 34.4도를 나타냈다.

반면, 같은 시간대 기상청 발표온도는 각각 33.7도와 32.3도를 나타내 1.9~2.1도의 온도차를 보였다. 기상청 발표온도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전북녹색연합, 기상청 발표와 생활온도 차 2도 ↑

온도의 차이는 전주기상지점이 측정소를 2지나 014년부터 기존의 노송동 주택가에서 가련산 녹지지역으로 이전하면서부터 벌어졌다.

전북녹색연합이 도시숲과 도심의 온도차이를 조사한 결과 안산공원 삼나무숲이 가장 시원한 온도를 기록, 7월 30일과 8월 6일에 각각 31.2도, 28.9도에 머물렀다.

이에 반해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지점은 경기전과 동산동네거리로 각각 37.4도와 36.6도를 기록, 도시숲과 도심의 온도가 최대 6.2~7.3도 차이를 보였다.

전주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기록한 곳은 7월 30일 경기전(전북대)코오롱하늘채(중화산동)·선너머네거리(중화산동)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북녹색연합이 올 여름 지면형질별 온도변화 추이를 확인하기 위해 24시간 지면온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천연잔디, 흙, 아스팔트, 우레탄, 인조잔디 순으로 지면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면형질별로 살펴보면 인공지면인 인조잔디, 우레탄, 아스팔트의 지면온도가 50도 이상 상승하는 등 매우 높은 온도를 보였다. 흙과 천연잔디가 40도 전후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를 나타냈다. 특히 건지산 숲속의 지면온도는 하루종일 25.4~27.6의 온도변화를 보여 다른 곳의 지면에 비해 시원한 것을 확인했다.

납과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으로 골칫거리인 인조잔디운동장과 우레탄트랙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지면온도가

50도를 넘어서는 등 지면온도가 급격히 상승,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스팔트의 지면온도는 꾸준히 상승해 하루 중 오후 2~4시 사이에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하루 종일 3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도시열섬과 열대야 현상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전북녹색연합 관계자는 "기상청 조사온도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온도 사이에는 2도 정도 차이가 발생, 시민들이 매우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도시열섬 저감방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상청의 기상측정 시스템부터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해 녹색공간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금융복지 시민강좌 ‘호응’

올바른 재무관리 방향 강의

전주시가 시민들의 건전한 가정경제와 재무관리를 돕기 위해 마련한 '금융복지 시민강좌'가 수강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있다.

전주시 사회경제적·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7월부터 전주시도시혁신센터 교육실에서 진행되는 '금융복지 시민강좌'가 금융복지에 대한 지식과 올바른 재무관리 방향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주)에듀머니 전문 강사진과 함께 총 25강(100시간)의 과정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전주시민 및 금융취약계층과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등 50여명의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금융복지 시민강좌는 △돈의 인문학 △가계재무구조론 △재무관리실무 등의 내용으로 꾸며졌던 40시간의 교양과정은 이미 완료된 상태로, 현재 전문가 과정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과정은 금융복지상담사 자격에 필요한 재무조정 및 금융복지의 이

해, 금융복지 상담실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실전에서 활용 가능한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진행된다.

금융복지 시민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송호림(39·서서학동)씨는 "앞으로 남은 강좌도 충실히 이수해 금융복지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해 전주시의 금융취약계층을 돕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다른 수강생은 "강의가 사례 위주로 상당히 심도 있게 진행되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현재 중산층에게 다가올 수 있는 금융위기가 끝 나게 다가올 수 있다는 위기를 느껴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강생 중 교양과정 40시간과 전문가 과정 60시간의 과정을 80%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금융복지상담사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자격시험은 강좌 마지막 날인 오는 9월 2일 치러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재무상담 등이 이뤄져 금융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라감영 복원 문화재발굴조사 가속화

전주시, 옛 전북도청사 부지 본관·의회동 발굴조사 시행

전주시가 선화당과 내아,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등 전라감영 주요건물의 위치와 모습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기 위한 문화재발굴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전주시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복과 전남, 제주를 관할했던 전라감영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핵심 공간으로 복원하기 위해 전주문화유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옛 전북도청사 건물 철거부지 약 7886㎡에 대해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한다.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현재 약 35% 정도 진행된 상태로, 전라감영 복원 예정지 전체면적(1만6117㎡) 중 지하층이 있는 경할청동(6231㎡)과 지난 2006년 발굴조사가 진행된 부분(2000㎡)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문화재발굴조사를 실시한 뒤, 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전라감영 주요 건물의 위치를 확정하는 등 전라감영 복원을 위한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8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선화당과 내아, 관공각, 연신당 등 전라감영 주요 6개 건물 복원이 추진된다. 이후, 2단계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시설이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라감영이 전주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이자,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불어넣는 공간으



조선시대 전라남·북도 및 제주도를 통괄하여 역사와 위상을 대변했던 전라감영의 복원 및 발굴현장에 대한 프레스토우가 18일 구)도청사 일원에서 열린 가운데 유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장이 발굴현장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로 재창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감영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각종 고지도와 문헌에 기록된 전라감영의 규모와 위치를 고려해 비파관식으로 18개의 구역(Phase)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7개의 Phase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지역의 유적은 대부분 파괴되거나 소실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안정층에서 고려~조선시대 건물터와 인도(人道)시설, 부석시설, 우물터 등이 조사됐다. 인도 시설은 남~북 방향으로 폭 202~426cm 내외의 3개소가 확인됐으며, 부석시설은 동~서방향으로 판판

한 석재를 이용해 시설됐으나 훼손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건물터 중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건물터에서는 여러 동의 건물이 중복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기반(基壇), 집터를 잡고 반듯한 집터위에 한층 높게 쌓은 단과 적심석(積心石, 안쪽에 심을 바아 쌓은 돌) 아궁이, 고래 등이 남아 있고 조선시대 건물터는 대부분 유실되고 1~2칸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시대 건물터의 동쪽에서는 우물터 1기가 조사되었는데 평면 형태는 원형이고, 석재를 이용해 축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전라감영지 발굴조사를 위해 지난 5월 전주문화유산연구원을 발굴조사 기관으로 선정했으며, 문화재청의 발굴조사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 7월 초 본격적인 발굴조사에 착수했다.

김병수 시 전통문화과장은 "선화당 이외의 내아, 관공각, 연신당, 내삼문 등 전라감영 핵심시설의 위치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전문가의 학술자문을 거쳐 발굴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며 "고지도와 문헌자료와 병행하여 전라감영의 흔적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추석 맞아 성수식품 특별 위생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용호)는 추석 앞두고 수요가 높은 설 성수식품에 대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무원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한과류, 떡류 및 제수용품 등의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 등 유통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또 식품별 기준규격에 따라 대장균, 중금속 등 위해여부를 검사해 위해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 위·변조, 식품의 표시사항 위반, 종사자의 개인위생 관리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현완 자원위생과장은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각 가정에서도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내연남에 앙심 품고 무고한 40대 여성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 제6단독(정운현 판사)은 18일 내연남이 자신을 감금, 폭행했다고 무고한 A(42·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23일 김제경찰서를 찾아 같은해 4월7일 오후 2시에 김제시 요촌동의 한 공원에서 B씨가 승용차에 자신을 강제로 태워 40분간 가두고 욕설과 함께 경총통 등을 일으키는 상해를 가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내연관계였던 B씨와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다

툼을 벌인 뒤 앙심을 품고 B씨를 무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

실제 A씨는 그해 3월13일 오후 1시 30분께 김제의 한 은행 앞에서 출장을 가려던 B씨의 승용차에 탄 뒤 "차에서 내리라"는 B씨의 요구를 무시하고 B씨의 차에 탄 채 김제시내 일원을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이날 B씨에게 "18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차를 세운 뒤 "뽕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자 차량 문을 세계 열어 전진주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